

'25년 2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광주문화방송

1. 회의 개최

연번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사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25- 2	2.19	회의실	11/12	4	1	16	○	-	-

o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 강필오·김동진·김안나·박양우·박종수·유한별·이경주·이숙희·장은백·정인영·정희(11명)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대표(사장), 제작 및 편성부서 국실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 -김낙곤(사장), 원승연(경영본부장), 김민호(콘텐츠본부장), 김철원(보도본부장)

- 경영진 외 : -황형철(경영심의팀 부장)

2. 심의 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시정요구) 및 시청자권익보호 등의 논의 안건(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0	13	1	0	3	17	0	17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 분	수 용	의견참고	반 론	계
건 수	17	0	0	17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 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보도	경제, 지역사회 문제 등 다양한 보도 바람	<뉴스투데이> 광주시 “AI 컴퓨팅센터 유치 추진”(2.21), 전남지역 ‘유니크 베뉴’ 추가 지정 추진(2.24), <시사특 라이브> 한국은행이 전망한 국내 경제성장 하향··원인은(2.25) 등 방송 조치	’25.2.
”	기아 타이거즈 등 프로야구 뉴스 계속 다뤄주길 바람	<시사특 라이브> 스포츠 하이라이트 특(2.24), <시사 용광로> 개막 앞둔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 전력은?(3.6) 등 방송 조치	”
”	시청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목소리 대변하기 위한 노력 바람	편성과 보도 책임자 의견 전달 조치	”
”	공항 이전 문제 대응책 마련될 수 있도록 보도 바람	<뉴스데스크> 무안군, “무안공항 조기 정상화해달라”(2.25) 등 방송 조치	”
”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소식 전해주길 바람	<뉴스투데이> “자연에서 힐링하고, 쉴 쉴함도 챙기세요”(2.24), ‘2025년은 완도 방문의 해’ 천만 관광객 목표(2.24), 봄의 서막··강진 청자축제 개막(2.25), 광주시-관광업계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 공동대응(2.25) 등 방송 조치	”
”	차 없는 거리, 지하철 2호선 등 문제 심층적인 보도 바람	<뉴스데스크> 사고 막으려다 2차 사고(2.27), 광주 지하철 2호선 공사 민원 2천여 건 접수(3.4) 등 방송 조치	”
”	<시사 용광로> ‘대내외 위기, 광주 경제 타격은?’ 편, 광주시민의 경제와 직결된 만큼 후속보도 기대	<뉴스투데이> 반도체 산업 최적지?··차세대 반도체로 돌파구(2.20), 트럼프 관세 정책, 대응 방안 ‘고심’(2.25), 광주 기업 60%, 환율 상승으로 부정적 영향(3.3) 등 방송 조치	”
”	제주항공 진상조사 문제,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보도 바람	<뉴스투데이>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첫 합동 현장조사(2.27), <5시 뉴스> 국토부, 이번 달 ‘무안공항 재개장 로드맵’ 발표(3.6) 등 방송 조치	”
”	기상 상황 전달 시 실시간 교통 정보, 대체 교통수단 안내 등 유용한 정보 전달 필요	보도 책임자 의견 전달 및 제작 시 의견 반영 권고 조치	”
”	‘RISE’ 사업 구체적인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람	<뉴스데스크> 전남대, 창업 중심대학 선정 5년간 365억 지원(2.28), <시사특 라이브> 전남대학교 비전과 학교 운영 전략(3.6) 등 방송 조치	”
”	의대생 휴학 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문제 보도 바람	<뉴스데스크> 의대생 없는 졸업식, 81년 만에 처음(2.26), <뉴스투데이> 새	”

		학기 시작, 수업 거부 여전(3.6), <생방송 빛나는 나의 도시> 의대생 수업 불참 해결 방안은?(3.6) 등 방송 조치	
"	에너지3법 등 에너지 현안에 계속해서 관심을 두길 바람	<뉴스데스크> 에너지3법 국회 통과되면?(2.20), 에너지3법 국회 통과하나(2.21), 에너지3법 국회 통과..“풍력발전 등 전남 미래산업 본격화”(2.28), <5시 뉴스> 해상풍력 국가기간 전력망 특별법 국회 통과 눈앞(2.20) 등 방송 조치	"
"	교통, 도시개발, 경제 등 주요 정책 현안 진행 상황 살펴주길 바람	<뉴스투데이> 논란의 ‘도시계획조례’, TV 공개토론 열기로(2.20),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거부권 행사...7년만(2.25), 광주시의회 “도시계획조례, 다각도 논의를”(2.27) 등 방송 조치	"
교양	<테마기행 길>, 우리 지역 다양한 관광 정보 소개 바람	편성 책임자와 담당 PD 의견 전달 및 제작 시 의견 반영 권고 조치	"
기타	홈페이지 뉴스 메뉴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더 보기’ 버튼 추가 필요	뉴스 메뉴에 ‘더 보기’ 버튼 추가 조치 (3.14)	"
"	<테마기행 길> 홈페이지 다시 보기에 프로그램 내용 정보 필요	홈페이지 다시 보기에 내용 입력 조치 (3.11)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4월 2일 실시 재보궐선거 관련,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등 관련 법규 준수	편성과 보도 책임자 의견 전달 및 관련 규정 준수 권고 조치	"
합계		17건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 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2000.0 ~ 2000.0)

성 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 (임기)
해당 사항 없음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홈페이지에 전문 공개

나. 상시의견수렴 실적

상시의견수렴방법	내용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메일	해당 사항 없음

당월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 고	반론
보도	경제, 지역사회 문제 등 다양한 보도 바람	다양한 지역사회 의제를 취재해 보도하겠음	○		
"	기아 타이거즈 등 프로야구 뉴스 계속 다뤄주길 바람	프로야구 사안은 지속해 보도해나가겠음	○		
"	시청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목소리 대변하기 위한 노력 바람	시청자들이 전해주는 의견, 제보 등을 뉴스에 충실히 반영하겠음	○		
"	공항 이전 문제 대응책 마련될 수 있도록 보도 바람	무안공항 활성화를 비롯해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 보도하고 있음	○		
"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소식 전해주길 바람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소개하는 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음	○		
"	차 없는 거리, 지하철 2호선 등 문제 심층적인 보도 바람	대중교통 등 시민의 통행권 문제를 가장 최우선으로 보도하겠음	○		
"	<시사 용광로> ‘대내외 위기, 광주 경제 타격은?’ 편, 광주시민의 경제와 직결된 만큼 후속보도 기대	지역경제를 살리는 보도와 토론을 주도적으로 제시해나가겠음	○		
"	제주항공 진상조사 문제,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보도 바람	제주항공 사고의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관심을 계속 기울이겠음	○		
"	기상 상황 전달 시 실시간 교통 정보, 대체 교통수단 안내 등 유용한 정보 전달 필요	폭설과 폭우 때 고속도로와 공항, 철도 등의 이용정보를 함께 제시하도록 하겠음	○		
"	‘RISE’ 사업 구체적인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람	우리 지역 대학의 활로는 찾는 라이즈 사업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음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 고	반론
"	의대생 휴학 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문제 보도 바람	의대생 휴학으로 인한 지역민의 궁금증을 풀어나가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	에너지3법 등 에너지 현안에 계속 해서 관심을 두길 바람	에너지3법을 비롯해 재생에너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송전망 확충 등 에너지 현안을 앞장서서 보도해나가겠습니다	○		
"	교통, 도시개발, 경제 등 주요 정책 현안 진행 상황 살펴주길 바람	도시계획, 대중교통, 지역경제 등의 현안은 가장 우선해서 보도해나가겠습니다	○		
교양	<테마기행 길>, 우리 지역 다양한 관광 정보 소개 바람	광주, 전남지역의 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유익한 정보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홈페이지 뉴스 메뉴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더 보기' 버튼 추가 필요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이 없는지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	<테마기행 길> 홈페이지 다시 보기에 프로그램 내용 정보 필요	프로그램 내용을 게재하여 시청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4월 2일 실시 재보궐선거 관련,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등 관련 법규 준수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보도하겠습니다	○		

시청자위원회 회의록(2025년 2월)

일시	2025년 2월 19일(수) 17시	장소	회의실
참석자	위원회	강필오 · 김동진 · 김안나 · 박양우 · 박종수 · 유한별 · 이경주 · 이숙희 · 장은백 · 정인영 · 정희 원(11명)	
	회사	김낙곤 사장, 원승연 경영본부장, 김민호 콘텐츠본부장, 김철원 보도본부장(4명)	

■ 회의 내용

- 박양우 위원장 : -2025년 2월 회의를 시작하겠다. 추운 날씨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린다. 날씨가 대단히 춥다. 서울만 추운 줄 알았는데 광주도 만만치 않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마음은 암울하고 어둡다. 조속히 마무리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 마지막 꽃샘추위가 있겠지만 봄은 올 것이다. 이 나라에도 모든 분야에서 소망도 새로워질 것이다. 사장님 인사 말씀 듣고 회의를 시작하겠다.
- 김낙곤 사장 : -시청자위원회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린다. 특히 위원장님께서서는 오늘 시청자위원회를 위해 서울에서 내려와 주셔서 감사드린다. 계엄 이후에 무안공항 참사가 있었고, 우리의 일상도 멈춘 것 같다. 나라와 상황이 멈춘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봄은 찾아오고 하니 봄기운을 받아서 광주MBC도 시청자에게 보답하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 박양우 위원장 : -콘텐츠본부, 보도본부 보고사항이 있으면 해달라.
- 김민호 콘텐츠본부장 : -1월 18일 방송한 <푸른 뱀, 해를 품다>는 호평을 받았고, UHD <타이거즈 왕조의 시작>은 한국전파진흥협회 제작지원을 받아 방송했다. 텔레비전과 라디오 개편을 3월 중순쯤 하려고 준비 중이다. 또한, 케이-티(K-TEA) 엑스포를 준비하고 있으며 추진위원회와 MOU를 맺었다. 각종 제작지원을 준비하고 있는데 계획을 말씀드리면, <문화콘서트 난장> 프로그램 음원을 발매하려고 한다. 음원이 6천 개 정도 된다. 라디오 MBC 칼럼을 다시 론칭 준비하고 있다.
- 김철원 본부장 : -5.18진상조사위 결과 보고 후속 작업이 잘 진행되지 않는 점을 취재해서 연속 보도했다. '대정부 권고안 던져두고... 받아 든 정부도 떨떠름', '4년치 280만 쪽 분량 다 어디로?', '대통령 직속으로 조사 뭐하나... 권고마다 흐지부지' 등 제목으로 보도를 했다. 제주항공 49재가 지났지만 사고 직후부터 지금까지 블랙박스, 시스템 문제 등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시사 용광로>에서는 탄핵 정국에 대해 보도했고, 김영록 지사가 출연해서 올해 정책을 들어보는 시간도 가졌다. 주요 계획으로는 포털사이트 카카오에 입점을 준비 중이다. 공모 신청 접수를 했고, 3월 초나 중순에 결과가 나올 것이다. 네이버도 입점을 충실히 준비할 것이다. 조기 대선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 3, 4월에 후보들의 면면 잘 볼 수 있는 특집, 인터뷰 프로그램 준비해 충실히 정보제공을 하도록 하겠다.
- 박양우 위원장 : -보고사항에 대해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면 해달라. 따로 없으면 위원님 별로 의견을 말씀해 달라.
- 강필오 위원 : -박애리 소리꾼의 사회로 어려움을 슬기롭게 풀어내서 성장과 성숙의 한 해가 되길 바라며 신년 특집 <푸른 뱀, 해를 품다>를 마련했다. 스물일곱의 나이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젊은 명창 정윤형씨와 국립창극단의 신인 김우정 소리꾼의 출연과 광주의 주요 랜드마크를 담은 XR(eXtended Reality) 영상 배경으로 다채로운 무대를 마련해 더욱 좋았다. 특히, 1월 1일 무등산 일출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함께 담아주셔서 공감하고 몰입할 수 있었다. 2025년에는 경제나 지역사회 문제 등 술술 풀려나가길 바라며, 다양한 보도를 계속해주길 바란다.
-<타이거즈 왕조의 시작>을 관심 있게 시청했다. 1부 <언더독의 반란>에 이어, 2부 <왕조의 시작>까지 타이거즈의 성공 신화를 통해 진정한 팀워크와 리더십의 중요성을 조명하는 다큐멘터리였다. 해태 타이거즈는 가난한 스타트와 선수 부족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감독과 선수, 팬의 단결된 노력 덕분에 한국 프로야구를 정복했다. 감독의 강력한 훈련 방식과 선수들이 스스로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자율 야구

의 철학을 강조하며,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팀원 간의 신뢰를 보여줬다. 실력이 아니라 팀워크와 열정이 어떻게 기적을 끌어냈는지를 보여주어서 특히 좋았다. 기아 타이거즈 등 프로야구 뉴스도 계속해서 다뤄주길 바란다.

-<본방을 보자> 월간 본술랭 겨울 간식 편에서는 겨울 간식인 붕어빵, 호떡, 타코야기를 소개해 주셨다. 다양한 재료로 맛을 낸 겨울 간식을 소개해 주신 덕분에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다. 특히, 감칠맛나는 해설이 영상을 더욱 돋보이게 해주어서 좋았다.

- 김동진 위원 : --<테마기행 길> ‘겨울 속 오감 만족! 무주의 감각 속으로’ 편에서는 덕유산의 역사를 통한 청각적 경험, 어죽 등 지역 음식을 통한 미각, 태권도원과 반딧불이를 통한 촉각, 특산물인 머루와인을 통한 후각, 환상적인 낙화놀이와 천체 관측으로 시각적 경험까지 오감을 만족시키는 경험을 제공하는 무주의 겨울을 소개해 줬다. 단순한 관광을 넘어, 자연과 문화, 그리고 사람과의 연결을 통해 현대인에게 필요한 다양한 감각적 자극을 제공했다. 특히, 지역 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어서 더욱 좋았다. 우리 지역에 관한 다양한 관광 정보도 소개를 바란다.

- 김안나 위원 : -광주문화방송은 <시사 용광로> 등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주요 이슈와 현안을 심층적으로 다루며, 지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와 밀접한 주제에 대한 지속적인 보도는 지역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청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질 높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게 노력해주길 바란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원인 규명과 대응책 마련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란다. 사고 이후 무안 공항은 잠정 폐쇄되었다. 이에 따라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 논의가 더욱 불투명해졌다. 제주항공 사고와 그로 인한 지역 공항 운영 및 이전 문제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다양한 시각으로 빠른 대응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취재 및 보도가 이어지길 바란다.

- 박종수 위원 : -2월 14일 <테마기행 길>에서는 겨울을 알차고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장소로 무주를 소개했다. 대한민국에서 네번째로 높은 산이며 덕유산에 대표 나무로 속이 붉은 나무인 주목이 있는 덕유산, 무주에 대표 보양식이며 향토 음식인 어죽, 태권도에 관한 모든 정보와 체험과 공연 등을 볼 수 있는 태권도원을 소개했다. 뿐만아니라무주의 특산물인 머무를 포도주로 만들어 판매하며 여러 체험을 할 수 있으며 와인 등을 맛볼 수 있어 이를 통하여 무주와 특산품을 알렸다. 이밖에도 낙화놀이 전수관,무주 초리 쾡쾡 놀이 축제장, 특산물 레스토랑과 특산물 카페 등이 인상적이었다. 무주천문과학관은 날씨가 좋으면 별들을 주야간으로 관측할 수 있고, 목성 등 그 시기에 맞는 행성과 별을 볼 수 있는 곳이며 2025년 3월에는 16년마다 한 번씩 펼쳐지는 우주쇼 중에 토성의 고리가 사라지는 현상도 관측 가능하다고 한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 오감을 만족할 수 있는 여행이었다. 시청하면서도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1박 2일의 여행이 잘 녹아있었으며 시청자들에게도 많은 정보를 주었다고 생각한다. 우리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소식도 전해주길 바란다.

- 유한별 위원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진상 보도를 잘 안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진상조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보도해주길 바란다. 관심의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당부를 드린다.

-<시사 용광로> ‘대내외 위기, 광주 경제 타격은?’ 편은 트럼프 2기 출범, 제주항공 참사 등 대내외 위기 이후 광주 경제의 어려움 등을 다각도로 진단한 점이 좋았다. 그에 대한 국회에서 광주시민을 위해 관심 두고 진행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서도 강기정 시장의 지적들이 명료했고 그에 대한 안도걸 국회의원의 구체적인 답변들도 의미 있었다. 광주시민의 경제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관련 주제 후속보도도 기대한다. 다만, 패널이 광주시장과 국회의원인 만큼 시에서 국회에 요구하는 부분뿐 아니라 광주시 차원의 경제 위기를 타개해 갈 자구책도 다뤄졌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 이숙희 부위원장 : -에너지 3법이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전라남도에 50조 투자가 확정이 됐다고 한다. 5년 전부터 에너지의 거리 병산제가 애기됐는데, 에너지 신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됐다. 저희 같은 기업에는 에너지 3법이 새로운 희망이다. 에너지 3법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지역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보도해주길 바란다.

-무한공항 참사로 우리의 공항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이다. 지역민들은 해외에 나가기 위해서는 인

천까지 밤새 차 속에서 4시간 반씩, 왕복 9시간을 이동해야 한다. 공항 문제나 이것으로 인해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보도해주길 바란다.

- 이경주 위원 : -광주MBC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뉴스', '시청자들이 선택한 그 뉴스', '디지털 콘텐츠' 등의 섹션을 제공하고 있지만, 메인 화면에 노출된 기사 외에도 해당 섹션의 모든 기사를 보고 싶을 때가 있다. 이를 위해 '더 보기' 버튼을 추가하여 사용자가 해당 섹션의 전체 기사 목록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구성하면 더욱 편리한 뉴스 탐색이 가능할 것이다.

-광주MBC는 광주와 전남지역의 기상 상황을 신속하게 보도하며, 날씨 변화에 따른 안전 수칙을 상세히 전달하여 시청자들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이러한 보도를 통해 지역민들이 기상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점은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기상 악화 시 실시간 교통 정보나 대체 교통수단 안내 등을 함께 제공하여, 시청자들이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더욱 유용한 정보 전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장은백 위원 : -'RISE' 사업은 대학위기 극복과 지방소멸 대응, 지역 혁신을 위해 지역과 대학이 힘을 합쳐 진행하는 중요사업이다. 지난해부터 광주시에서는 RISE 사업 지정을 위해 큰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기사 내용으로 다뤄줘 감사하다. 다만, 해당 사업이 작년부터 큰 노력을 기울여 진척이 있었던 것에 비해 이번 기사 내용은 간단하고 추상적으로 작성되어 해당 사업의 중요성이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력, 향후 해당 사업 진행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언론과 시민을 통해 감시 견제되어야 하는지 포인트를 알기 어렵다.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유지되고, 우리 시의 중요정책이 건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광주MBC가 구체적인 접근과 깊은 고민을 위해 노력해주면 감사하겠다.

-에너지 3법 중에서 우리 광주 전남지역과 연관된 부분이 있다. 법률로 인해서 임시 저장시설이나 핵 연료를 보관하는 시설을 건설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영광 핵발전소는 안전성이 의심스럽다는 의견이 있다. 다양한 에너지 관련 현안 등 이러한 부분에 대해 다뤄줬으면 한다.

- 정인영 위원 : -일하는 곳이 병원이다 보니까 의대생 휴업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 사실 확인이 추측성 내용이 나오기도 한다. 정국이 어수선하다 보니 관심이나 책임이 없는 것 같다. 너무 많은 학생이 올해까지 쉬게 된다. 의료공백이 길어지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 관심을 가지고 보도하길 바란다.

-<테마기행 길>은 국내 다양한 지역을 심도 있게 탐방하여 명소, 즐길 거리, 먹거리 등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1월 17일에는 대구를, 2월 14일에는 무주를 소개했다. 대구 편에서는 젊은 창작자를 위한 공방 소개가 인상 깊었고, 대구에서 천혜향이 재배된다는 사실도 흥미로웠다. 또한 활 전문가와의 인터뷰도 매우 좋았다. 무주의 명물인 덕유산 설천봉의 눈 덮인 모습도 잘 담겨 있었고, 매우 큰 규모의 태권도 박물관과 공연 등을 소개한 부분도 좋았다. 각 지역 MBC 제작 프로그램이어서 몇 군데 지역 MBC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았는데, 대구, 부산, 전주MBC의 경우 <테마기행 길>의 다시 보기 섹션에서 썸네일을 만들어 각 일자의 프로그램 내용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구성하였고, 유튜브에서 볼 수 있도록 링크를 연결해 놓았다. 그러나 광주MBC의 다시 보기는 방송 일자만 목록으로 제공되며, 직접 영상을 실행해야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서, 다른 지역 MBC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광주MBC에서 제작한 영상에는 '방송에 나온 정보'라는 항목을 만들어 영상에서 소개된 장소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 점은 매우 좋았다.

- 정희 위원 : -1월 18일 <푸른 뱀, 해를 품다>에서 젊은 명창이 시공을 초월한 XR 영상 속에서 가본 적이 있는 서석대를 배경으로 "한계령"을 부르니 가사의 의미가 오히려 잘 다가왔다. <타이거즈 왕조의 시작>과 관련하여 그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옷이라든지 구장의 사정이 많이 나아지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언제 기회가 되면 시민들의 삶에 미친 영향, 시민들의 애환과 야구와의 인연을 소재로 옛 추억을 되돌아보는 것을 기획해 보면 어떨까 생각해 본다. <소방차도 부족한데 순찰 기록도 허위>라는 보도 프로그램을 보면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실행되지 않는 곳이 공사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있음이 떠올라 씁쓸했다. <시사 용광로> 김영록 지사의 대선 관련 발언은, 당선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호남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숙희 부위원장님께서 에너지 3법에 관해 의견을 제시해주셨다. 3기가 정도를 쓰는 회사를 전남에 투자하면 에너지 지형이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더 많은 기업이 내려올 것이다. 지역의 경제를 위해 좋은 선도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대해 계속해서 관심을 가

저주길 바란다.

- 박양우 위원장 : -<뉴스데스크> “광주시 ‘차 없는 거리’ 시작부터 빨간불”에서는 광주광역시의 정책 중 미흡한 사례를 지적함으로써 공기로서의 방송 역할을 잘 감당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주변 상인들과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보도 가치도 충분했다고 본다. 위 사안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더 감안하여 보도했더라면 좀 더 입체적인 보도가 되었을 것이다. 이 정책사례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방정부의 정책 관련 보도를 할 경우에도 참고가 됐으면 한다. 위 정책 사안은 광주광역시의 사전 준비가 미흡했던 것 같다. 우선 이 정책을 수립하면서 주변 상인, 이용할 시민, 시의회와의 소통 그리고 기초지자체들과의 협력 문제 등이 사전에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것 같다. 이는 광주광역시가 정책 수립 시 감안해야 할 기본을 놓친 것이라고 본다. 관치행정의 한 실례를 보여주었다. 이에 대한 지적과 앞으로 정책 수립 시 이런 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제안했더라면 좋았겠다. 다음으로 인터뷰 대상자 선정이다. 물론 차 없는 거리 주변의 영업 당사자인 주변 상인들의 인터뷰는 기본이겠지만, 그 거리를 이용할 시민들의 반응까지 인터뷰했으면 더 입체적 보도가 되었을 것이다. 시간 제약이 있는 뉴스이기 때문에 시간상 한계가 있었겠지만, 시민 한 사람이라도 인터뷰를 추가한 다음 차 없는 거리 정책의 타당성까지 한번 짧게라도 언급해주면 좋았겠다. 시민들은 차 없는 거리보다도 주차장 확보나 지하철 2호선 조기 완공 등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다. 이 문제에 관해서도 심층적인 보도를 해주길 바란다.

-“이제는 정치인도 ‘무관용’. 광주 광산구, 불법 정당 현수막 ‘첫 과태료 부과’”에서는 불법 정당 현수막에 대해 광산구가 과태료를 부과한 보도가 매우 시의적절했다. 시청자들의 관심을 충족시키기에도 충분한 보도였다. 보도 내용 또한 정당 현수막과 일반 현수막에 대한 처분 결과를 도표로 보여주는 등 시청자가 이해하기도 좋았다. 중앙정부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행정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도록 유도한 점도 매우 좋았다.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을 발전시켜 시민들이 풍요롭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지자체의 정책이나 예산이 다 발표가 됐다. 다 다룰 수 없다고 한다면 교통, 도시개발 문제, 경제 등 주요한 것들이라도 지금은 어떻게 준비가 돼서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면 좋겠다. 혹시 다른 의제는 어떤지 전문가들과 함께 대담이나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시민에게 서비스이지만 정책 당국에는 경각심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좋을 것이다.

- 박양우 위원장 : -위원님들의 의견에 더할 말씀이 있으면 해달라.
- 김민호 콘텐츠본부장 : -<문화콘서트 난장> 음원 발매를 3월에 하는데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다운로드 받아주길 바란다. 다시 시작할 라디오 프로그램 MBC 칼럼에도 좋은 분들을 칼럼니스트로 추천을 바란다. 케이-티(K-TEA) 엑스포는 코엑스에서 열린다. 세계적인 차 박람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관심 있는 위원님들의 참여를 바란다.
- 박양우 위원장 : -중국에 비해 우리 차 시장은 규모가 작다. 엑스포 같은 게 좀 유치하긴 한데 그럼에도 매우 큰 힘이 되기도 한다. 중국이나 일본보다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성공적으로 행사가 치러지길 바란다.
- 김철원 보도본부장 : -위원님들께서 보도에 관한 의견을 많이 주셨다. 저희가 미처 보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에너지 3법, 조준위를 비롯해 제주항공 보도는 앞으로도 진상조사가 될 때까지 끝까지 관심을 가지겠다. 광천~상무선 이런 것도 현안인데, 도시계획 문제 더 관심을 가지고 보겠다.
- 김낙곤 사장 :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다. 본부장들도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것이다. 에너지 3법, 의료공백을 비롯해 제주항공 49재를 지냈는데 진상조사 등 관심을 가지겠다. 100일이 되면 그때는 공영방송으로서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고민하며 공영방송의 역할을 하겠다.
- 박양우 위원장 : -3월 회의는 좀 더 밝은 시절에 볼 수 있을 것이다. 회의를 마치겠다.

끝.